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지역경제계 ‘초비상’

기업들, 인력충원 등 고충 호소
건설업계, 동절기 주말작업 금지
경제단체 “정부 지원 확대해야”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법령이 모호하고, 안전 전담부서 설치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과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 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 유형과 경영책임자 범위, 준수내용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대기업들은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올해 안전환경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공장 각 부문 별로 일일 상시 현장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 참여 ▲작업장 내 위해 위험 요인 개선대책 추진 ▲선제적 환경설비 구축과 에너지 관리를 통해 친환경 사업장 조성 동참 ▲10대 안전수칙 준수 동참 안전사고 예방 ▲원·하청 협력 통한 구성원 안전보건 확보 등을 세부 원칙으로 제시했다.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단위공장, 부

서, 그룹 단위로 안전점검문을 작성·서명해 게시하고, 부서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진행, 안전 문화를 확대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상시 운영하던 광주안전환경팀의 기능을 강화했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범위를 확대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은 지난달 환경안전 전담부서인 ‘SHE기획팀’을 발족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사고 대응 등을 전담한다.

지역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현장 안전사고 0’을 목표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과 추가할 부분을 분석해 안전과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사업 특성상 사고가 빈번한 건설 등의 분야에서는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현장 특성상 사고 가능성이 큰 주말과 휴일의 안전관리 소홀을 막기 위해 동절기 주말작업 금지 등 안전강화 원칙을 세웠다.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본부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또 사고 발생에 대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호반건설은 CSO를 선임하고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고, 이밖에 많은 중견 건설사 사주들이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에 나섰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사전 조치를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안전 전문 인력 부족



배은심 여사 빈소 찾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열 열사 모친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화환을 뒤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청와대 제공

과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업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 첨단산단에서 광동성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처벌받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가 업종에 특화된 지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 그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직원들에게 ‘사고 조심하자’는

당부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 전에 불분명한 내용을 점검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이 경영 책임자의 범위, 준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준비 부족 등으로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가 빠른시일 내에 법 개정(보안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합평 이전’ 확정

LH에 지난 6일 계약보증금 납부
인·허가 등 절차 1년 소요 전망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합평 이전이 본격화된다. 금호타이어와 LH는 지난달 30일 빛그린산단 이전을 위한 임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합평 이전을 확정지었다.

9일 금호타이어와 합평군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6일 광주공장 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납부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전하는 부지는 빛그

린산단 2단계 사업구역으로, 약 50만㎡를 대상으로 한다.

금호타이어는 빛그린산단 일원에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계약 보증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보증금 납부는 부지 이전을 위한 첫 절차로 인·허가와 부지 조성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납부 금액을 밝힐 수 없다”며 “최종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공시할 수 없게 되면 허위 공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부지 설계변경과 인·허가 절차 마무리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호타이어는 생산시설 노후화와 친환경타이어로의 생산시설 전환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와 함께 광주공장 이전작업을 추진해 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현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자리잡은 건 지난 1974년이다.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변경을 놓고 광주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전 작업은 3년 가까이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지부진하던 공장 이전은 지난해 8월 이용섭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빛그린산단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금호타이어 측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황애란 기자

광주·전남 제조업체·요양병원 등 연쇄 확진

광주·전남에서 잇단 집단감염으로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9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광주·전남에서 2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 92명(8691-8781번), 전남 112명(6589-6700번)이다.

광주·전남 하루 확진자 200명대는 지난 6일 211명 발생 이후 두 번째 기록이다.

▲광산구 소재 A 제조업체 관련 2명 ▲광산구 소재 B 제조업체 관련 5명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8명 ▲남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2명 ▲동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2명 ▲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2명 ▲서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4명 ▲서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4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 14명 ▲기존 확진자 관련 31명 등이다.

전남에서는 11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지역별로 ▲목포 44명 ▲나주 17명 ▲무안 11명 ▲진도 9명 ▲함평 7명 ▲광양 6명 ▲강진 5명 ▲고흥 3명 ▲여수·영암·완도 각 2명 ▲장흥·해남·장성·신안 각 1명 등이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99명, 전남 72명이다.

전날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오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공장 관계자 4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방역작업을 진행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내가 찾는 복지정보가 한눈에!
광주복지플랫폼
welfare.gwangju.go.kr



광주복지플랫폼이란?

광주복지플랫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자원, 서비스, 빅데이터 정보등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다음, 네이버 등에서

'광주복지플랫폼'



를 검색해보세요!

